

국정뉴스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에 한치 흔들림도 없어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추석연휴와 겹쳐 나흘 앞당겨 9월 28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한 안보, 책임국방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며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한미동맹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우발적 군사 충돌 예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유엔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회원국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우발적 불안정성 해소와 다자외교를 통한 불가역적 북핵 폐기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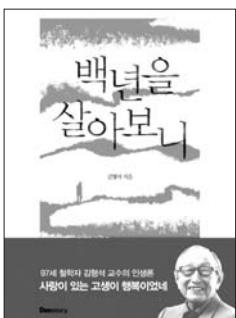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KFF북클럽 1차 독후감 우수작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백년을 살아보니〉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똑같은 행복은 없다)에선 행복 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하고, 제2부(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에선 결혼과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제3부(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에서는 우정과 종교를 주제로, 제4부(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서는 돈과 성공, 그리고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5부(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에서는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하며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테다.

짧지만은 않은, 그리고 단 한번 뿐인 인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란 물음에 나보다 오랜 시간을 먼저 경험하신 이의 깨달음은 정답은 아닐 수는 있으나 적어도 해답에 가까운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하고 진부한 내용일 수 있으나 백년 가까이 살아온 작가의 진솔하고 담담한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묵직하게 들려온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함수 관계’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며 행복, 결혼과 가정, 우정과 종교, 돈과 성공,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p.48). 그리고 90고개를 넘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남기고 싶은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한다(pp.50~51). 또한 인간의 성공은 자신의 역량만큼 노력하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돈 때문에 인생 자체를 희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한 고민보다 먼저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고민한다. 그러다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흙수저’로 태어난 나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작가는 “재산은 자신의 인격 수준만큼 가져야 한다”고 한다. 더 갖기 위한 방법, 열심히 쓰는 궁리만하고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할 줄만 알았지 내가 그것을 가져도 될 만한 인격이 되는가라는 물음을 내 자신에게 던져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저자의 그 한마디는 꽤나 충격적인 신선한 물음이었다.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다. 특히 저자는 “사랑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가족과 제자, 후배와 선배,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였던 삶을 살아온 그였기에 너무도 평범하고 그저 그럴 수 있는 저자의 이야기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감정이 아름다운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서도 여성미를 유지하

는 법이라고 말했다. 나는 행복하게도 살고 싶지만, 무엇보다 여자로서도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 살다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미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은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사회를 향할 때도 많다. 기쁨과 즐거움, 온화함과 같은 감정과 달리 부정적인 감정들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거나 또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에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소유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작가의 말처럼 바로 감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 자신의 행복은 물론이고 내 주변 이들의 행복한 삶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지향점을 향한 실천으로써 나는 아름다운 감정을 갖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한다. 부정적이고 그릇된 감정을 품었던 어제의 나를 반성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감정을 갖도록, 내일도 오늘처럼 아름다운 감정을 품고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본다.

이현승 | 자유통일연구원 교육담당